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2010년 12월 1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부품소재총괄과 원동진 과장, 신재혁 사무관(02-2110-5615)	

소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R&D 종합지원 체계 정비

- **'세계 4대 소재 강국 진입' 기틀 마련을 위해 소재기술 개발시 범 부처 협력을 통한 「소재 R&D 종합 지원체계」 정비 추진**
- **국과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 구성·운영**, 전담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소재 R&D사업 효율화 및 소재산업 경쟁력 제고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최경환)는 미래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소재산업 지원을 위하여 **지경부와 5개 관계부처**(교과부, 국토부, 환경부, 중기청, 방사청) **합동**으로 **「소재 R&D 종합지원 체계정비** (안)」을 12월 9일 **국가과학기술위원회** 운영위원회(위원장 : BH 미래전략기획관)에 상정함으로써 **범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기틀**을 마련하였음

○ **산업경쟁력의 원천**이 **완제품, 부품산업 중심에서 소재산업**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**부처별 소재 R&D 투자 효율화**를 통해 2018년 '세계 4대 소재산업 강국'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**관련 부처간 논의를 통해 종합지원 체계를 정비**하고자 함

- **소재분야의 R&D지원이 증가추세**에 있지만 부처간 협력체계 미흡으로 **유사 또는 편중·분산 투자 요인이 발생할 우려**가 있어 이를 대비·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음

* 소재 R&D 자금 : 2008년 4,961억원에서 2009년 8,756억원

<'07~09년 부처별 소재 R&D 투자액 현황>

(단위 : 억원, %)

부처	2007		2008		2009		총합계
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	비중	
교과부	2,102	37.6%	2,375	47.9%	3,111	35.5%	7,578
국토부	8	0.1%	0	0%	91	1.0%	99
방위사업청	3	0.1%	48	1.0%	40	0.5%	91
지식경제부	2,979	53.2%	1,692	34.1%	4,690	53.6%	9,361
환경부	179	3.2%	294	5.9%	164	1.9%	637
중소기업청	326	5.8%	552	11.1%	660	7.5%	1,538
총합계	5,597	100%	4,961	100%	8,756	100%	19,314

□ 금번 상정된 "소재 R&D 종합 지원체계"의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○ 정부는 **소재 R&D 통합 조정관리**를 통한 소재 기술개발 시스템의 효율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**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**으로 **「소재기술개발소위원회(가칭)」** 구성·운영

- 동 소위원회에서는 부처간 소재개발 수요 분석, 공유, 민간의견 수렴 및 정보교환을 통해 **공동정책 어젠더를 발굴**하고, 각 부처의 기술로드맵에 근거한 소재개발 통합기획, 신규사업 투자계획 등 **소재 기술개발 투자계획을 검토·조정**하는 역할 수행

- **소재 R&D통합관리 시스템 구축**을 감독하고 **국제협력대응**체계를 수립 운영하며, 녹색성장,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**특성화 소재군을 발굴**

○ 부처별 **R&D과제의 효율적 추진, 관리를 목적**으로 각 부처소속의 R&D **전담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**하기 위해 **『소재종합지원협의체』**를 설치·운영

- 소재종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소재 R&D사업의 **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구성과를 공유**해 **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**용하도록 할 예정임

- 또한, 기업수요, R&D과제정보, 우수 성과 및 협력사례 등에 대한 **통합정보조사체계**를 구축,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, **부처별 연구관리 제도 불일치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**하는 역할도 수행

<소재 R&D 종합지원 추진체계>



○ 부처별 유사·편중된 투자 발생요인 제거를 위해 **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**으로 **NTIS 내 「소재관리 통합시스템」을 구축**하여 R&D를 위한 조사·분석·기획·평가·성과확산 등을 관리·검토

- 소재개발과제의 **범부처 통합평가시스템 구축**을 통해 **기획부터 상용화 및 성과확산까지 일관된 프로세스 관리**가 가능하게 되며,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

- 부처별로 **기 구축된 소재정보 인프라**(소재정보은행 및 Test-bed,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등)을 기반으로 개발된 소재의 객관적 물성을 확보·제공하고 **상용화 가능성을 평가**함으로서 **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**할 예정임

○ 부처간 **공동협력사업 강화**를 통한 **시너지 효과 창출**을 위해 **「시스템연계소재개발사업」** 추진

- 연계 소재별 국내기술 개발 가능성, 적용규모,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**부처간 공동 기술맵 작성** 및 **전략적 개발 품목 선정을 통한 공동협력 아이템을 발굴**하여 사업 기획 추진

○ 적극적인 **해외기술 도입**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**해외선진연구기관의 소재 R&D사업 참여를 적극 개방**하여 **글로벌 소싱** 능력 강화

- 소재원천기술을 보유한 **유라시아** 및 **미국, 일본, 독일과의 공동기술개발 확대**하며, 소재분야에서 **「소재한인과학자네트워크」**를 구축하여 국내 연구개발과 연계 강화

- 선진국 핵심소재기술 개발동향 및 기술습득을 위해 국제협력 거점 확보

* MOU체결 해외전문연구기관: NIMS(일), MPI(독), ORNL(미) 등

- 소재부문 선진국과의 **실질적인 인력교류를 통해 기술기반을 확보**하고, **중장기 과제**에 대하여 **상호간 인력교류 파견 의무화** 추진

* 미국(오크리지, UC버클리), 일본(NIMS), 독일(라이프니쯔) 등 선진연구기관에 우수인력을 파견하거나 초빙하여 공동연구 수행

□ 지식경제부 **우태희 주력산업정책관**은 "이번 국가소재 R&D 체계 정비(안)"은 **범부처간 협력사업의 기틀을 마련**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며, 이를 통해 향후의 10년은 **우리경제가 세계 소재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기**가 될 것"으로 전망함

<별첨> 국가 소재 R&D 체계정비(안)